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위글족

维吾尔族

Wéiwú'ěrzú

편자 선미시노
역자 윤재운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尹在润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维吾尔族: 朝鲜文 / 仙米西努编; 尹在润译. —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57-4

I. ①维… II. ①仙… ②尹… III. ①维吾尔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1.5-4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 215994 号

维吾尔族

WEIWUERZU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海世达印务有限公司

幅面尺寸: 180mm×240mm

印 张: 5

字 数: 40 千字

印 数: 1-1500

出版时间: 2014 年 9 月第 1 版

印刷时间: 2014 年 9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 张学林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李 京

标准书号: ISBN 978-7-5497-0857-4

定 价: 18.00 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 www.lnmzchs.com

淘宝网店: <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 족)

샐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 족)

왕해연(창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위글족의 역사와 생활환경

- 우구스칸에 관한 전설 /9
- 고창성에 관한 전설 /13
- 수투커 부거라칸에 대한 이야기 /17
- 버거다산에 관한 전설 /21
- 호양나무에 관한 전설 /25

제2장 위글족의 인문풍속과 일상생활

- 충명한 치만한 /29
- 포도에 관한 전설 /33
- 어린 낭조리장에 관한 이야기 /35
- 공주와 비단 /39
- 바담꽃모자에 관한 이야기 /43
- 땅은머리 마흔가닥에 관한 이야기 /45

제3장 위글족의 생산기술과 전통공예

- 카리즈에 관한 전설 /49

키즈르석굴에 관한 전설 /51

호탄탄자에 관한 전설 /55

제4장 위글족의 민간예술과 전통체육

다프에 관한 전설 /57

아부두러시티칸과 아만니사한왕비 /59

아이리푸와 사이나임에 관한 이야기 /63

칭 테무르에 관한 이야기 /69

아반티에 관한 이야기 (1) ——바이를 지혜롭게 골려주다 /73

아반티에 관한 이야기 (2) ——소송을 걸다 /75

복과 화의 재주겨루기 /77

다와즈에 관한 전설 /79

참고문헌



제1장 위글족의 력사와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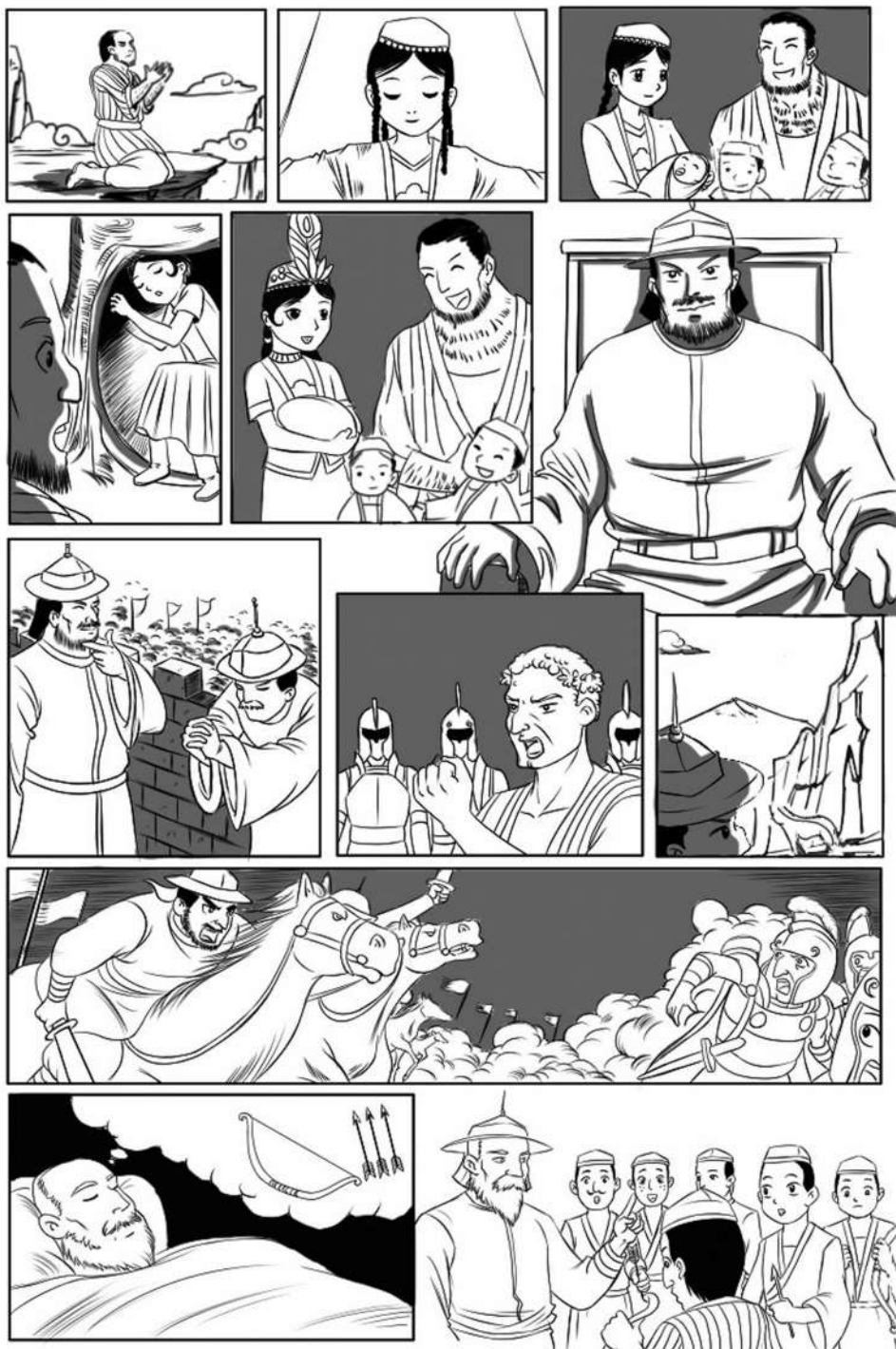
우리 나라 서북변강 타클리마칸사막주변의 오아시스에는 열정적이고 호방하며 근로용감한 위글족이 살고있다. 위글족은 오랜 민족으로 그 기원이 복잡하다. 그 주요한 기원의 한갈래는 몽골초원에서 온 회홀(回纥)인이며 다른 한갈래는 남쪽 변강 오아시스의 토착주민이다. 기원 744년 회홀부락은 현재의 이르훈(鄂尔浑) 강류역을 중심으로 건립된 유목민의 봉건칸국(封建汗国)이었다. 기원 840년 칸국이 멸망하자 부족들은 북쪽 서천(西迁)하였다. 그중 대부분은 오늘날의 신강으로 이주해 당지의 여러 민족과 장기적으로 융합하면서 공동발전하여왔다.

우구스칸에 관한 전설

나 젊은 어머니 아이한이 남자애를 낳고 이름을 우구스라고 지었다. 우구스는 태어나자마자 보통사람들과 달리 40여일만에 성인으로 자라났다. 그는 외모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얼굴은 푸르렀고 입술은 불같이 붉었으며 눈은 선홍빛을 띠었고 온몸에 털이 가득 났다. 그의 어깨는 검은 담비처럼 넓었고 가슴은 곰처럼 탄탄했으며 허리는 늑대처럼 령활했고 다리는 황소처럼 굵직했다. 그는 소와 양을 방목하면서 말타고 사냥하며 훌륭한 재주를 연마하였다.

우구스가 살고있는 마을옆에는 원시삼림이 있었는데 깊은 삼림속에는 흉악한 외뿔짐승 한마리가 서식하고있었다. 외뿔짐승은 늘 숲속에서 나와 백성들의 가축을 해치곤 하여 사람들은 마음놓고 지낼수가 없었다. 우구스가 삼림속에 들어가 사냥할 때 가증스러운 외뿔짐승이 여러번이나 사냥한 짐승을 끌고달아났다.

후에 우구스는 긴 창으로 사람과 가축을 잡아먹는 외뿔짐승을 찔러죽였다. 백성들을 위해 해를 제거하였기에 우구스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으로 되었다.



하루는 우구스가 높은 산에서 하느님에게 모배(膜拜)를 올리고있었다. 이때 공중에서 한줄기 푸른 빛이 쏟아져내렸는데 그 빛이 달빛보다 맑고 밝았다. 우구스가 가까이 가보니 한 소녀가 그 푸른 빛속에 앉아있었다. 소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우구스는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어 그를 안해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는 해, 둘째는 달, 셋째는 별이라고 불렀다.

어느날 우구스는 밖에서 산책하다 한 나무동굴에서 다른 한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구스는 그 소녀도 사랑하게 되어 그를 또 안해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또 아들 셋을 낳았는데 각각 하늘, 산, 바다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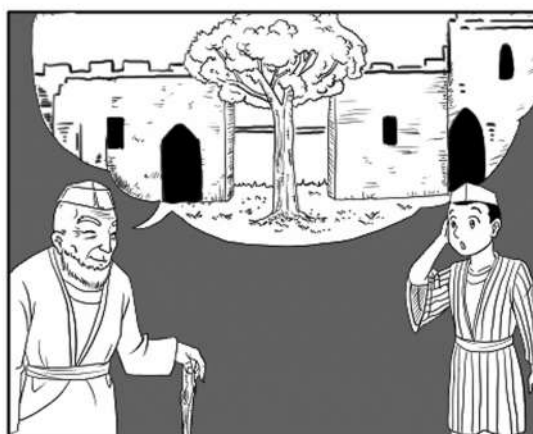
후에 영웅 우구스는 이 나라의 칸(可汗, 고대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정치적수령, 신령, 하느님이라는 뜻)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우구스칸이라고 불렀다. 어느날 우구스칸은 관원들과 백성들을 소집해놓고 호령하였다. “나는 그대들의 칸이니라, 모두들 활을 지니고 나를 따라 원정에 나서라!” 이리하여 우구스칸은 장기적인 원정전(远征战)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군대가 동방에 이르자 금나라 칸은 자원적으로 복종의 뜻을 표시하여 우구스칸은 그와 친분을 맺었다. 그러나 서방의 로마황제는 반항했다. 하여 우구스칸은 대군을 이끌고 정벌하러 갔다.

어느날 아침 그들이 빙산아래에서 숙영하는데 커다란 늑대 한마리가 새벽빛속에 나타나 자원적으로 우구스대군을 위해 길안내를 하겠다고 했다. 불가강변에서 쌍방 대군은 격전을 벌였다. 우구스칸이 승전을 거두었고 로마황제는 패하여 도망쳤다. 이어 우구스칸은 또 녀진을 정복하고 인도와 서하(西夏) 등 나라를 정복했다.

하루는 우구스칸이 꿈에 금활 한개와 은화살 3개를 보았다. 년로한 우구스칸은 여섯 아들을 불러놓고 해, 달, 별에게 동트는 동방으로 가서 금활을 갖고오게 하고 하늘, 산, 바다에게 암흑의 서방에 가서 은화살을 갖고오게 하였다.

아들이들이 먼길에서 돌아오자 우구스칸은 큰아들 셋이 동방에서 갖고온 금활을 세토막으로 나누어 해, 달, 별 세 아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방에서 갖고온 은화살을 하늘, 산, 바다 세 아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당부했다. “활로 화살을 쏘니 화살은 활에 복종해야 한다.”

후에 우구스칸은 국토를 아들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해, 달, 별 셋은 동방에서, 하늘, 산, 바다 셋은 서방에서 함께 관할령지내의 각 부족을 통치하였다.



고창(高昌)옛성은 툐판동남쪽 40킬로미터의 화염산기슭에 위치해있는데 신강경내에 현존하는 최대의 옛성유적이다. 고창옛성은 기원전 1세기에 축성되었는데 기원 5세기중엽에는 툐판분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되었다. 오랜 세월속에서 서역대지에 일어난 많은 정치, 군사 사건들은 모두 고창성과 다소 련관을 갖고있다.

고창성은 어떻게 축성되었는가? 이에 대해 민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류전되고있다.

고창성에 관한 전설

아주 오랜 옛날 화염산기슭에 단커유누스라고 하는 한 목민이 살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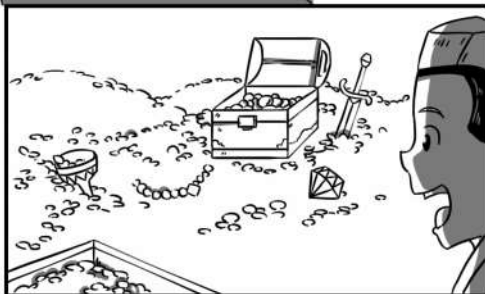
어느날 단커유누스는 양을 방목하다가 종이쪽지 한장을 주었는데 쪽지에는 그가 종래로 보지 못한 기괴한 문자가 정연하게 적혀있었다. 호기심이 든 그는 이 문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싶어 쪽지를 품속에 간직하고 지혜로운 현철(贤哲)로인을 찾아갔다.

현철로인은 화염산속의 동굴속에서 은거하고있었다. 년로한 그는 머리와 수염이 은백색이였고 허리도 굽었으며 두눈은 가늘게 실눈을 하고있어 눈을 감은것처럼 보였다. 그는 단커유누스의 손에서 쪽지를 받아들고는 작은 나무가치로 두눈을 지탱하여 뜨고 주의깊게 자세히 살폈다.

쪽지를 다 본후 로인은 미소를 띠고 단커유누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단커유누스는 의혹스러워 왜 웃으며 고개는 왜 끄덕거리는가고 현철로인에게 물었다.

현철로인은 슬슬 수염을 쓰다듬으며 단커유누스에게 말했다. “얘야, 이것은 하느님이 너에게 내리는 은혜란다. 너는 이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될것이니라. 종이쪽지에 적힌대로 너는 너의 집 울안의 뽕나무밑등에서 북쪽으로 364보를 걸은 다음 동쪽으로 다시 20보를 가서 그 자리를 파보거라. 너는 보물고를 얻게 될것이니라.”

단커유누스는 반신반의하며 로인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린후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단커유누스는 절친한 친구 몇을 불러 보물찾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쪽지에 적힌 지점에 가서 힘을 합쳐 땅을 파내려갔다. 그들이 7, 8미터쯤 깊이 파았을 때 커다란 금컵이 나타났다. 그들이 금컵주변의 흙을 치우고보니 그것은 큰 금문이였고 금문에는 거대한 금자물통이 채워져있었다. 그들이 계속 주변을 파자 커다란 바위돌밑에서 금자물통의 금열쇠가 나왔다. 금문의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단커유누스가 번쩍번쩍 빛나는 금열쇠로 금자물통을 열자 삽시에 대지가 진동하며 “우르릉” 하는 거대한 소리가 났다. 소리가 멎자 금문이 열리며 금빛찬란한 궁전이 그들앞에 나타났다.

젊은이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금문안으로 들어가보니 웅장한 궁전안에는 41개의 방이 있고 방마다 갖가지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차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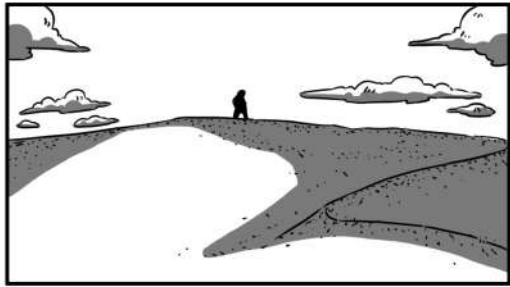
젊은이들은 나와서 금문을 닫아놓고 즉시 동굴로 가 현철로인을 만나보고 발견한 이 기적을 알려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로인에게 물었다. 로인은 젊은이들에게 궁전안의 금은보화를 꺼내고 그 지하궁전의 우에 새로운 궁전을 짓는 게 어떻겠는가고 하였다.

단커유누스 등은 로인의 뜻에 따라 금문우에다 새로운 궁전을 짓고 또 궁전 주변에 거리와 집들을 지었다. 이리하여 새로운 도시 하나가 이곳에 생겨났다.

단커유누스는 이 도시의 관리자로 추대되었으며 현철로인도 이곳의 고문대신(顾问大臣)으로 초청되었다.

몇해 지나지 않아 이곳은 원근에서 유명한 부유한 곳으로 되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와 주변마을로 몰려와 정착하고 자원적으로 단커유누스의 관찰하에 귀속되었다. 고창왕국은 이렇게 탄생되었고 이 변화한 도시는 이때로부터 고창성(高昌城)이라 불리게 되었다.

당년의 고창성이 바로 현재의 고창옛성으로 신강의 유명한 문화관광승지와 전국중점문화재보호단위로 명성을 떨치고있다.



카라칸(喀喇汗)왕조는 10세기중반 서천(西迁)한 회흘이 기타 부족(部族)을 연합해 건립한 정권이다. 이 시기 위글족은 위대한 국왕을 배출했는데 그는 위글족을 이끌고 이슬람교에 귀의(皈依)하여 위글족의 생활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이 국왕이 바로 수투커 부거라칸이다. 아래의 이야기는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다.

수투커 부거라칸에 대한 이야기

수투커 부거라칸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정사에 능한 군주로서 국사를 잘 다스리고 간언(諫言)을 널리 받아들여 백성들의 깊은 애대를 받았다. 후에 수투커 부거라칸은 이슬람교에 귀의하고 이슬람교를 카라칸왕조의 국교(国教)로 정하였다.

어느날 수투커 부거라칸은 꿈에 흰 두루마기차림에 흰수염을 드리우고 언행이 선비처럼 우아한 년장자 한분을 만났다. 년장자는 그에게 말했다. “얘야, 래일 너는 서쪽을 향해 가거라. 가는 길에서 너는 첫번째로 만나는 물건을 파묻어버리고 두번째로 만나는 물건을 구조해주고 세번째로 만나는 물건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네번째로 만나는 물건을 먹어버리고 다섯번째로 만나는 물건을 멀리하거라.”

이튿날 수투커 부거라칸은 아부나슬 사마니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아부나슬 사마니가 말했다. “존귀하신 폐하, 폐하께서 꿈에 만난 년장자는 성인(圣人) 헤이즐(민간전설중에서 전문 조난자를 위해 가르침을 주고 고통을 풀어주는 예견자)이옵니다. 이것은 폐하에 대한 성인의 시험이오니 폐하께서는 그의 가르침대로 떠나시옵소서!” 이리하여 수투커 부거라칸은 인차 서둘러 서방을 향해 떠났다.

수투커 부거라칸은 오래동안 걸어서 넓은 사막에 이르렀다.

길에서 그는 금반(金盞)을 발견했다. 그는 성인 헤이즐의 가르침에 좇아 금반을 모래속에 묻었다. 그러나 금반은 저절로 모래속에서 빠져나오는것이였다. 그가 다시 금반을 깊이 묻었으나 또 빠져나왔다. 수투커 부거라칸은 할수없이 그대로 두고 계속 길을 재촉했다.